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271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루카 17,11-19)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니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루카 17,11-19

주일, 09:00, 신병 미사가 시작되었다. 두 개 기수(입대 시기가 서로 다른)가 함께 종교 참석을 하는 날이라 성당에 자리가 없다. 포장마차에서 쓰는 빨강고 파란 플라스틱 의자를 이용해 자리를 만들어 보지만, 사람이 겨우 다닐 통로만 제외해도 자리가 부족하다. 어쩔 수 없이 제대 위까지 훈련병들이 차지하였다.

신병들이 입고 온 땀에 절고 흙으로 변색된 전투복에서는 머리가 멍할 정도의 악취(사람의 몸에서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다)가 풍겨온다. 이곳에 온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 냄새는 적응이 잘 되지 않는다.

신병들의 모습을 보며 십 몇 년 전의 나의 모습을 떠올려본다. 나는 공군 병 출신이다. 지금 신병들이 땀 흘리는 바로 저 자리에 나도 똑같이 서 있었다. 뜨겁게 달궈진 연병장을 온 몸으로 박박 기며 인간이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배웠고, 숨 막히는 가스실에서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의 소중함을 배웠고, 각개전투와 유격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힘을 배웠고, 구보와 행군을 통해 하느님이 맺어준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웠으며, 잠들기 전, 묵주알을 굴리며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를 배워 나갔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허락되는 종교참석은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을 불러 일으켰고,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해 줬다. 그러기에 더욱 더 신병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더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고 싶고, 신앙의 기쁨을 얻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나의 바람과는 별개인 것 같다.

십 몇 년 전에 내가 앉아 있던 성당은 지금은 그 모습 그대로여서 여전히 좁고 불편하고, 덥고 추운 바깥 날씨를 고스란히 몸으로 느끼면서 미사에 참례해야 하며, 타 종파에 비해 비교도 안 되던 간식 보급 역시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다. 달라진 게 있다면, 선배 군종 신부님의 노력으로 에어컨(그나마 오늘 같은 날은 별 효력이 없어 보인다)이 들어왔고, 마당에 정수기가 설치되었다는 것 정도, 그래도 딱 곳으로 가지 않고 성당으로 찾아온 이 신병들이 너무나도 예쁘다. 냄새 폴폴 풍겨도, 미사 시간 내내 졸고 있어도, 지들끼리 킁킁대며 웃고 떠들어도 그 신병들이 너무나 예쁘고, 이들을 성당으로 이끌어 주신 하느님이 너무나 감사하다. 환기도 안 되고, 공간도 협소하고, 예쁜 짧은 치마 언니들도 없고, 잠깐이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휴식의 공간도 갖춰져 있지 않은 이곳에 '천주교'란 이름만 믿고 신병들은 주일 오전 꿈같은 시간을 내어 놓는다.

이십 대 초반의 젊은이들, 자기 좋은 일 외에는 도대체 관심도 없는 신병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습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을 연상시킨다. 나병이 나았다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아홉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려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더 좋은 음식과 환경을 마다하고 일주일을 온전히 버틸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려 성당을 찾은 훈련병들의 모습이다.

(수원교구 10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바룩서의 간추린 소개”

5분 신앙상식

저자

예레미야의 서기이자 친구였던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되어 있으나 바룩의 이름을 빌려 쓴 차명서간임.

저작 시기

기원전 2세기 후반.

저술 동기

바룩서는 유배 이후,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게 하고자 참회 예식을 거행하도록 권합니다. 유배는 죄의 결과이고, 유배에서 구위해 주실 분은 바로 그 재난을 내리신 하느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룩서의 구성

1. 서문(1,1-14)
2. 참회 기도(1,15-3,8)
3. 지혜에 관한 명상(3,9-4,4)
4. 예루살렘을 위한 권고와 위로(4,5-5,9)
5. 예레미야의 편지(6,1-72)

공지사항

-10월은 목주 기도 성월입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집안에, 그리고 당신의 나라 안에 평화를 원한다면 저녁마다 목주기도를 드리기 위해 한 곳에 모이십시오.-1883, 12, 24 교황 비오 9세의 교서에서.

-10월 3일(일) 오전 9시-오후 4시에 ‘본당의 날’ 행사와 기념 바자회가 열립니다. 산호세 교구장 맥그라 주교님께서도 방문하시는 ‘본당의 날’ 행사를 위해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 성경말씀

루카 23,35-43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 신앙 안에서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많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 결정의 중심에 과연 하느님께서 계시는지 조용히 묵상해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소공동체가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침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가도하녀...
저서 현 정 수
적곡 현 정 수

하느님 백 성 자 녀들 아! 모 두 모 - 여 라

우 리 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알렐루야

중 - 기 하 고 방 사 하 자 세 상 모 두 에 게

마 음 보 - 아 기 도 하 고 함께 나 가 자 천 국 으 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